

투데이

박준영 전남지사, 대선 출마 선언

“정체성 잃은 민주는 새누리에 필패 DJ적통... 남북개선·경제성장 자신”

장고를 거듭하던 박준영 전남지사가 ‘민주당 후보경선 참여’를 선언하면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임기 2년을 남겨둔 ‘3선 도지사’로서 출마 배경은 무엇인지,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것인지, 도지사직을 던지며 배수의 진을 칠 것인가가 지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왜 출마했나=박지사는 평소 원칙을 중시하는 정치인이다. 전남의 주요 정책 역시 설혹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이같은 원칙 아래 도민을 설득해가면서 실행해왔다. 지금은 세상이 됐지만 취임 직후부터 들고 나온 친환경농업이 그렇고, 국제대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열어부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선 출마도 박 지사 나름의 원칙에서 비롯됐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꾸긴 했지만 보수의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은 열린우리당과의 통합과 분당을 통해 너무 잦은 이합집산의 모습을 보이면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를 안으려다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인 중도보수 노선을 놓치는 실수를 했다는 판단이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위해 순전을 무공천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따라서 이 상태로는 대선에서 새누리당에 필패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적통인 호남중심의 구민주적 역할이 필요하고, 자신이 호남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것이 출마를 결심한 이유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수시로 지역민들과 호남향우들의 출마 권유를 받아왔고 그 때문에 고심을 했다고 밝혔다. 잠재적 대선 후보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27일 전남도청에서 만나 구민주주의 역할에



박준영 전남지사가 27일 오전 전남도청을 방문한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과 환담하고 있다. 동고동계로 대선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두 사람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정치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례적 만남'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모든 통일·경제 대통령=박지사는 조만간 대선 출정식을 갖고 자신이 내세우는 대통령상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이른바 모토인 DJ의 적자라는 점을 내세워 '통일'과 '경제' 대통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햇볕정책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된 점을 늘 안타까워 해왔다. 또한 차기 중국의 1인자로 내정된 시진핑 부주석과의 특별한 관계를 활용해 대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것도 그만의 경쟁력이다.

경제대통령을 내세우는 이유는 DJ정부 때 IMF를 현명하게 극복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박 지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지만 효과적인 대응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해 온 점도 경제대통령을 모토로 내세울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주 여부는 미지수=민주당 대선 후보경선에 참여해 끝까지 중주할 것인가는 도지사직 사퇴문제와 직결된다. 현재까지는 사퇴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현안인 여수엑스포가 끝나는 8월 12일부터 공식 사퇴시한인 9월 20일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지사는 자신의 말처럼 “출마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사퇴해야 하지만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보궐선거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선 도지사직을 내던지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지적 때문에 사퇴여부를 아직까지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사퇴문제도 어떤 형태로든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중주 여부는 도지사직을 내던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가 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 12개 농수산물 FTA에도 살아남는다

전북·녹차 등 성장 가능성 높아...마늘·나지 '위기'

전남을 대표하는 20개 농수산물 중 전북·전일엽·녹차 등 12개 품목은 시장개방으로 치열해진 FTA(자유무역협정) 시대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지난 4개월간 전남 대표 농수산물 20개 품목에 대해 최근 12년간의 통계자료를 정리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생산량이 전국 1위인 녹차·무화과·유자·매실·배·양파·마늘·대파·참깨·멜론 등 농산물 10개 품목과 전일엽·전북·김·미역·다시마·참조기·나지·병어·뱅장어·

젓갈 등 수산물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성장가능성이 큰 품목은 녹차·무화과·유자·매실·멜론 등 농산물 5개 품목과 전일엽·전북·김·미역·다시마·참조기·젓갈 등 수산물 7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8개 품목 중 배·양파·대파 등 3개 농산물은 현상 유지 또는 약화가 예상되며 마늘과 참깨 등 2개 농산물과 나지와 병어·뱅장어 등 3개 수산물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큰 품목으로 분류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배의 경우 유통회사인 나주조합공동사업

법인 설립이후 2007~2010년 평균 수출 증가율이 21.7%로, 전국(11.2%)에 비해 월등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일엽도 2010년 신안 신의도 주민과 CJ제일제당이 공동으로 '오천년의 신비'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생산액이 전년보다 2.3배나 늘었다.

반면 농수산물 수출은 점차 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시장 다변화가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은 녹차·유자·배·멜론 등 4개 품목 수출이 많았지만 배는 대만과 미국에 지나치게 편중됐고, 녹차와 유자는 전남이 주산지임에도 수출량이 적고 관련산업의 가공과 수출 기반도 열악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2040년 전남 환갑이 중간 나이”

광주 48세...가장 젊은도시 될것

2040년에 전남에서 60세는 중년으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광주에서는 48세가 중간나이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힐 것으로 예상됐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2040년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을 살펴보면 2040년 전남지역의 중위 연령은 60.2세로 전국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위연령은 모든 인구를 나이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이다.

2010년 16개 시도별 중위연령을 살펴보면 2010년엔 전남이 43.3세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40.9세), 강원(40.6세), 전북(40.2세),

부산(40.0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중위연령은 30대다.

광주의 경우 2010년 중위연령이 35.2세로 대전과 함께 가장 젊은 지역으로 꼽혔으며 2040년에는 48.3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힐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은 2040년에는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42.5%로 3명중 2명이 고령자며, 85세 초고령인구 비중도 6.5%(11만명 이상)로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2010~2040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 충북, 충남, 강원 등 중부권 인구가 각각 192만명(7.9%), 65만명(9.8%)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지만 광주·전남 등 호남권은 13만명(-2.3%)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민기자 emlee@

공기업 인사 검증 광주시 조례 공포

광주시가 지방공기업사장 등에 대한 인사 검증 조례를 공포했다.

광주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되어 지난 25일 광주시로 이송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조례'를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상 단체장의 임원 임면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달 14일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같은 달 21일 시의회에 재의 요구되었고, 지난 20일 제208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조례로 확정됐다.

광주시가 재의결된 사항을 행안부에 통보함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오는 7월 말까지 대법원에 제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 포사격장·동백훈련장 이전 백지화 우려 장성·영광군 “단 한 평도 못내준다” 강력 반대

광주 광산구 평동 포 사격장과 동백훈련장 이전 계획이 인근 자치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장성·영광군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4월 육군보병학교와 658만㎡ 규모의 평동군훈련장(포 사격장, 동백훈련장)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상무대 주변의 장성과 영광지역 대체 부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해 국방부에 기부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하는 계획을 구상했다.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는 포 사격장과 동백훈련장 이전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김양수 장성군수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군사시설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면적을 축소 조정해 수용하라

고 하는데 단 한 평도 수용할 수 없으며 (군수) 직위를 걸고 이전을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정기호 영광군수도 “광주시가 한 번도 상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며 “주민 반대 여론이 많고, 이전 부지가 거론되는 곳은 중장기적으로 휴양레저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어서 군사시설을 이전할 부지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성과 영광이 반대해 대체부지를 찾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포 사격장과 동백훈련장 이전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낙연 주승용 정종득 김종식... 도지사 후보군 '꿈틀'

27일 박준영 전남지사가 대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지역 정세가 들쭉거리고 있다. 박 지사가 사퇴의 배수진을 치고 대선 도전에 나선다면 전남지사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장, 도지사 후보군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4선의 이낙연 의원과 3선

의 주승용 의원이, 자치단체장으로는 정종득 목포시장과 김종식 완도군수가 거론되고 있다.

최인기 전 의원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 노관규 전 순천시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새누리당 후보로는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 등이 거론된다.

박 지사가 11월 19일 이전에 지사직을

사퇴한다면 연말 대선과 함께 전남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하지만 박준영 지사가 사퇴의 배수진을 칠 것인가는 미지수다. 오히려 박 지사가 사퇴하지 않고 민주통합당의 후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www.ocskj.com

## 광주에 단 한곳뿐인 6년제 중국학교

### 광주화교 중국학교 유치부 신입생 모집

- 모집인원: 60명(선착순 모집)
- 지원자격: 2006년 이후 2007년 12월 이전 출생자
- 원서교부: 2012년 7월 1일 ~ 7월 9일(9일간) 오전 10:00~오후 04:00
- 원서교부장소: 유치부교실 ☎ 232-4163, 4165
- 원서접수: 2012년 7월 10일 ~ 7월 14일 (오전 10:00~오후 03:00)
- 원서접수장소: 유치부교실 ☎ 232-4163, 4165
- 구비서류: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매, 소명합판 사진 3매(3×4cm), 주민등록등본 1통
- 서류전형일: 2012년 7월 15일(합격자대상자만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원서료: 10,000원 (원서 교부시)
- 유치부등록일: 2012년 7월 16일 ~ 7월 20일
- 소집일: 2012년 8월 17일 오전 10시
- 개원일: 2012년 8월 21일 (오전 8시 40분 ~ 오후 2시)

“유의사항”

- 생년월일 미달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단 대기자 등록 가능 : 정원 미달 시 생일 순으로 입학가능)
- 등록후에도 지원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무효로 합니다.
- 학기중에는 입학이 불가능 합니다.(華僑 제외)
- 입학 후 본교의 학업을 포기할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학비는 상환 후 반환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본교 교무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교무실 ☎ 232-4163 - 전화상담시간: 오전 10:00~12:00

## 光州華僑中國學校 Tel.232-4163